

제주사회복지신문

>2018년 10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32호



▲ 지난달 8일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열린 '2018 제주 나눔 대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나눔상자 만들기를 하고있다.

포용적 복지로 희망을 밝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나눔 대축제 성료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한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8 제주 나눔 대축제'가 지난달 8일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열렸다.

'포용적 복지로 제주의 희망을 밝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식전 축하 공연에 이어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기부금·품 전달식,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식 후 진행된 제주나눔대축제에서는 '나눔상자 만들기'와 1000인분 비빔밥 나눔 '삼촌 밥 먹영 감사', 들꽃 합창단의 합창공연, 춤

바댄스 등 다채로운 재능기부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나눔 도서관과 나눔 장터, 캘리그래피·캐리커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나눔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시에 진행됐다.

고치환 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주도 사회복지계의 질적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과관, 의회의 협력이 필수요소"라며 "앞으로 각자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보다 빠른 시간 내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25%를 달성하겠다"면서 "제주 전체의 살림살이 중에 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발굴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그 따뜻함에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라며 "도민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과 요구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로 복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화보 4~5면

제주형 복지행정 모델 구현키로

도민통합공약실천위원회, 공약실천계획 확정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제주형 복지행정 모델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도민통합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허향진)는 지난달 10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가 커지는 꿈'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원희룡 지사에게 공약집을 전달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은 14개 분야 1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됐으며, 2022년까지 총 4조 9016억원을 투자해 추진된다. 보건 복지·여성 분야는 모두 16개의 이행과제가 선정됐다.

첫 번째 과제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 건설이 꼽혔다.

기본생활 영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빈틈없는 기초생활 보장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민간 전문가와 연계한 원스톱 복지시스템 구축등을 위해 2527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인 실천계획으로는 스마트복지관 및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지원

확대, 홀로 사는 어르신·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 확대, 지역사회 복지기관 인력 증원, 사회복지사 채용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공공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산남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증대를 위해 요양병원 신축, 안과·치과·피부과 등 미개설 진료과 증설, 병상수 증설 등으로 서귀포의료원의 역량이 강화된다.

도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장애 인구 증가 및 다양한 복지 욕구 해결, 장애인 복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독립직제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장애인 여성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연도별 증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5060지원센터' 운영,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등이 추진된다.

지면소개

■ 종합 2면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대야"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특집 4~5면 사건으로 보는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 기획 8면 시설탐방(99) - 성자현

제주지역복지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 일 시 : 2018. 11. 2(금)~30(금) 매주 금요일 16:00~18:00(총 5회)

• 대 상 : 총 20명

-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우리 협의회 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 제주도의회 의원, 비영리법인 및 단체장, 도내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등

• 장 소 : 우리 협의회 바람소리홀

• 교육 참가비 : 금 100,000원

• 신청기간 : 2018. 10. 8(월)~26(금)

• 신청방법 :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교육과정 배움' 직접 신청→ 홈페이지('교육지원'→수강이력)전자결재(영수증 출력 가능)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해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지난달 12일 정책토론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지난달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토론회는 제주도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개원을 앞두고 있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하는 의사나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치의 제도 및 장애인 건강검진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제1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및 관련 법률, 국내외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등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제2주제 발표는 한 국일차의료학회장인 고병수 365일의원 원장이 맡아 장애인주치의 현황 등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정필 제주관광대

학교 겸임교수를 좌장으로 손복남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장, 발달장애인 부모 이유미씨, S중앙병원 김장수 건강검진센터장, 신은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정책팀장,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법률이 제정돼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장애인 건강검진이나 주치의 제도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주에서 먼저 제대로 된 주치의 제도 및 장애인 건강검진이 이뤄져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담아낸 렌즈 속 제주



25일 희망원서 전시회

제주시희망원(원장 김숙희)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희망원 2층 강당에서 ‘렌즈 속 아름다운 세상’ 나도 포토그래퍼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사진>

이날 전시회는 성산일출봉 광치기해안가, 향파두리 유적지 유채꽃, 절물자연휴양림 풍경, 하가리 연화못 연잎, 연꽃, 마방목지 등 희망원 내 장애를 갖고 있는 노숙인 30여명이 촬영한 작품으로 꾸밀 예정이다.

전시작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3~9월까지 진

행된 사진 활동을 통한 마음치료 프로그램 ‘렌즈 속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 습득한 사진기술을 바탕으로 촬영한 작품이다.

특히 전시 작품 중 ‘너영 나영 행복한 웃음’은 제주가 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제12회 사랑사진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희망원 관계자는 “프로그램은 장애를 갖고 있는 노숙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며 “많은 분들께서 사진전에 참여해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마음의 여유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사회복지원장에 휴완스님 임명



휴완스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장)이 태고종 사회복지원장에 임명됐다.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은 최근 휴완스

님을 태고종 사회복지원장에 임명했다.<사진 왼쪽>

휴완스님은 1991년 선암사에서 월명스님을 은사로, 덕암스님을 계사로 득도 수계 했으며 제주대학교 졸업 후 원광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제주불교강원대교과 수료, 제주교구 포교원장, 제주동부경찰서 경승실장,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장, 함덕 덕림사 주지를 맡고 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휴완스님은 남다른 능력으로 복지활동에 수완을 발휘하고 있는 분으로, 종단 사회복지를 총괄해 태고종이 앞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통한 전법 포교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휴완스님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애증심을 갖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종단사회복지분야를 새롭게 정립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구입비 지원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재섭)는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 설비 효율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효율향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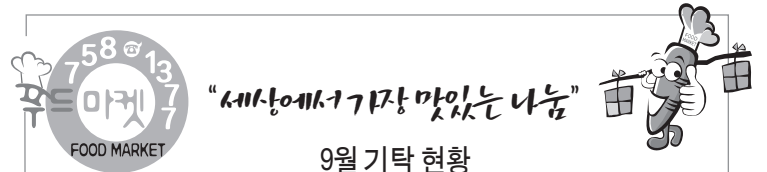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 장애인(장애인복지

법)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지자체 운영시설(직영, 위탁)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또는 신규 구입시 제품가격의 50%를 지원받게 되고 지원 한도는 사회복지시설 당 1600만원이다.

지원은 2017년 8월 19일 이후 냉·난방기 구매분(소급 적용 가능)부터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배정된 사업비 10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구매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한전 제주본부·한전서귀포지사(방문, 우편)로 하면 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9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61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2,708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제빵130봉 ▲곽은주님=감귤주스24개 ▲금산서당골=축산물140kg ▲나눔베이커리=제빵78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152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43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1,741개 ▲박민숙님=카놀라유3개 ▲미인빵=빵55봉 ▲비엔누아즈=제빵310봉 ▲SH유통=냉동미트볼30팩 ▲정필이오메기떡=떡125개 ▲파파무베이커리=제빵88봉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8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280,000	320,000
난 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375,000	375,000
복 지 사 업 후 원	1,020,000	419,430
푸 드 마 켓 후 원	3,045,000	120,66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내 화분을 부탁해’ 행사 성황

도 사회복지협의회·일배움터, 지난달 14일 제주도청서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사회공헌주간’에 대한 홍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원장 오영순)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주관한 ‘내 화분을 부탁해’ 행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4시부터 제주도청 민원실 앞 카페 인근 녹지에서 개최됐다.<사진>

‘내 화분을 부탁해’ 행사는 시민들이 빈 화분을 갖고 오면 청년 장애인들이 키워온 10여종의 식물을 심어 주고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일배움터에서 준비한 300여 본의 꽃과 식물이 조기 소진돼 추



가 확보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의 날(9월 7일)로부터 1주간인 ‘사회공헌주간’을 알리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기도 했다.

김성건 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공헌주간을 맞아 일배움터에

서 예쁜 꽃을 키우고 있는 청년장애인들과 도내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모인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시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김미야씨는 “청년 장애인들이 정성으로 키운 꽃을 나눠 주고 하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라하모니합창단 공연 성료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12일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창단 5주년 기념 ‘제1회 아라하모니합창단 정기공연’을 개최했다.<사진>

아라하모니합창단은 2014년 아라동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모여 결성됐다.

특히 2014 제주사회복지합창대회 장려상, 아름다운 올림상을 수상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초청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합창단은 문순배 도립합창단 수석테너 지휘자와 최유정 반주자의 지도로 홍난파가 작곡한 ‘고향의 봄’과 이수인의 ‘별’,

김규환의 ‘남이오시는지’ 등 클래식 음악부터 ‘한사람’, ‘장미’, ‘수은등’, ‘너영나영’, ‘노들강변’ 등 흥을 돋우는 곡들을 선보였다. 특히 1부에서는 심상호 첼리스트가 협연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이와함께 맑은소리봉사단, 소프라노 정혜민이 특별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조성태 관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라하모니합창단은 아라동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연령층과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하고 있다”며 “합창단 창단부터 현재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호응’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

이 사업은 미취업 시각장애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형 일자리 사

업이다.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에서 선정한 경로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경로당 별로 주 1회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및 질환에 따른 맞춤형 웰빙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는 시각장

애 안마사 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안마사 1인당 하루 5명 내외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8월까지 304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2만7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안마사 출·퇴근 및 배치기관 이동 차량 지원 등의 업무지원은 물론,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서비스 경로당 선정 및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제주들꽃합창단, 합창공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제주들꽃합창단(단장 원석철)은 지난달 15일 제주 용연 계곡에서 진행된 ‘2018 용연선상음악회’에 참가해 합창공연을 선보였다.

제주들꽃합창단은 여성합창단으로 활동하다 2018년 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소속 혼성합창단으로 재창단

해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찾아가 공연을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음악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서 제주들꽃합창단은 ‘서우젓 소리’와 ‘아름다운 세상’ 합창해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강순부 들꽃합창단 단원은 “많은 도민 및 관람객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 캠프

제주시 후원으로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가 주관하는 2018년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캠프가 지난 지난달 3~4일까지 금호리조트에서 개최됐다.<사진>

이날 캠프는 창암교육활동센터, 유진주간활동센터,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라주간보호센터, 한솔주간보호시설, 한울주간활동센터, 행복한 쉼터, 희망나래 활동센터 등 210여명이 참여



한 가운데 진행됐다.

캠프는 혼비무용단(단장 강혜인)의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공연과 물놀이, 레크레이션 등으로 진행되는 등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건강가정한마음대회 열린다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홍석운)는 오는 14일 제주시평생학습관에서 ‘개소 10주년 기념 건강가정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센터 10년 사업보고, 우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2018 모두가족봉사단 베품시장 수익금 전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센터 종사자와 이용자, 자원봉사자를 위한 명랑운동회와 발마사지, 네일아트, 건강관리, 디퓨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홍석운 센터장은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일하는 센터 종사자와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나온 10년처럼 앞으로도 제주

지역 가족들의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해 설립됐다. 문의= 725-8005.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이모저모

제19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됐다.

먼저 지난 8월 31일 사라봉체육관에서 사회복지가족의 단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2018 제주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생활·이용인,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9월 8일에는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8제주 나눔대축제'가 제주국제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윤리선언문 낭독, 유공자시상 등이 진행됐으며 나눔대축제에서는 비빔밥 나눔, 나눔상자 만들기와 함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는 등 성황을 이뤘다.

- ① 체육대회 참가자 단체사진
- ② 체육대회 단체줄넘기
- ③ 체육대회 림보
- ④ 사회복지의 날 기념 퍼포먼스
- ⑤ 나눔대축제 들꽃합창단 무대공연
- ⑥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길트기 공연
- ⑦ 나눔대축제 1000인분 비빔밥 나눔





김예빛(제주동초등학교 6학년)



송연아(노형초등학교 2학년)

제주도지사상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주요 수상작 소개

‘2018 제주 나눔대축제’가 열리는 제주국제대학교 운동장에서는 제주도내 어린이들이 참가한 ‘제2회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개최됐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나눔’이 하얀 도화지에 색색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는 140여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도지사상 등 36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도의회 의장상



김동경(화북초등학교 6학년)



박예진(삼화초등학교 2학년)

제주도 교육감상



김서연(남광초등학교 5학년)



김다인(제주서초등학교 1학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 장려

고다영 (화북초등학교)

송유나 (삼화초등학교)

양혜원 (동광초등학교)

양혜정 (이도초등학교)

고예준 (아라초등학교)

김채현 (노형초등학교)

진채연 (화북초등학교)

윤무혁 (아라초등학교)

태하운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유준 (함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혜미 (에덴어린이집)

강혜원 (제주영락유치원)

변규리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박현진 (프라임국제어린이집)

변윤서 (화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상 15명.

▲ 입선

김유건 (장천초등학교)

이근영 (북촌초등학교)

김태양 (남광초등학교)

양지우 (동광초등학교)

김준우 (동광초등학교)

김예린 (제주동화초등학교)

장지환 (동광초등학교)

현경은 (노형초등학교)

고예윤 (엔젤유치원)

채지흠 (강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허희재 (영락유치원)

윤연서 (제주어린이집)

오연우 (조천삼일어린이집)

김주는 (제주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가운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

이상 15명.

시론

마흔 살 택시 기사

택시를 탔는데 기사 뒷모습이 무척 앓돼 보인다. 대뜸 나이를 물으니 올해 마흔 살이란다. 되짚었다. “마흔 살 택시 기사님은 우리 도내에 몇 분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한데 그건 왜요?” 그 물음에 내가 그만 싱거운 사람이 된 기분이다.

읍내까지 25분여다. 길지 않은 시간이나, 몇 마디 얘기를 나누면 택시 안이 훈훈해질 수 있다. 연동에서 탄 택시가 연삼로 깊이 들어섰다.

젊은 기사가 얘기를 꺼낸다. “실은 아까 그분한테서 2만 원을 받았습시다. 남은 돈은 돌려드리라더군요.” “아, 그래요?” 낄새를 알아차린 바지만 기사가 그 얘길 먼저 한 것은 짚는 뜻밖이다.

조금 전 내가 강의하고 있는 글방 문우들과 회식을 하고 나오던 참이었다. 그들이 택시를 잡으면서, 동시에 요금을 건네면서 한순간에 이뤄진 일이다. “아, 그랬군요.” 그냥 웃는다. 무언의 화답이었다.

그가 입을 다물었다면 내릴 때 작은 실랑이가 일 수도 있는

일이다. 택시비를 받은 적 없다고 막무가내로 잡아떼면 하릴없는 일이기도 하니까.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으나, 구지레한 노릇이라 지갑에 손이 가 있을 것이다.

가만 생각해 본다. 젊은 택시 기사가 선뜻 요금 애길 한 건 무얼까. 지레 짐작이긴 하나 내 모습에서 아버지를 느꼈던 걸 아닐까. 아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느낀 게 먼저였을지 모른다. 밤길에 핸들을 잡은 젊은이에게서 서울 사는 아들을 떠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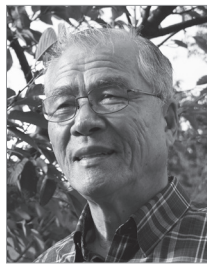
“어이, 젊은 친구, 택시를 오래 타면 하체가 부실하다던데 쉴 땐 운동도 좀 하고 그러게나.” 그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인다. 몇 마디 하는데 택시가 고살길을 치고 오른다.

집 앞에 몇자, 기사가 남은 돈 7천 5백 원을 뒤로 넘긴다. “5천 원만 줘요. 많이 벌게, 젊은 친구!” 끝전을 돌려줬더니 고개 숙여 고마워했다. 덩달아 돌려주는 마음도 가벼웠다. 젊은이, 운전이 짹짹 급커브를 그리며 떠났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한다. 젊은이들이 예의를 모른다, 미덥지 않다, 배려심이 없다고 개탄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할 만큼 우리 사회가 메마른가. 그렇지 않다. 기계라면 아직 고쳐 쓸 만하지 않을까. 한쪽 귀통이가 녹이 슬었으면 닦아내면 되고, 마음 한쪽이 찌들었다면 알맞은 처방으로 치유 가능한 것 아닐는지.

생각이 부정으로 흐르면 긍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다. 회의적이던 일도 희망적인 것으로 치환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은 의외로 강하다.

마흔 살 택시 기사만한 올곧은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기고

학교 밖 청소년 현실 극복 할 수 있는 도움 필요

지난 9월 7일 개최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실제 학교 밖 청소년 김미영 양(가명)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 <편집자주>

부모님의 사별 이후 재혼, 그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늘 부족했던 용돈. 어렸던 나는 그저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싶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어 새 어머니의 저금통을 훔쳤고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대었다. 점차 그 횡수가 늘고, 천 원, 이천 원이 만원이 되어갈땐 두려움보다는 스티와 기쁨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러다 부모님께 걸리게 된 후 부터 부모님은 습관처럼 나를 비난하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것에도 때리고 욕을 했다.

고등학생이 되어 반항을 하기 시작하자 그 강도는 더 커졌다.

학교와 집에서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고등학교 초반에는 기숙사에도 들어가 보고 정신과 진료도 받아봤다. 하지만 ‘나’만 바뀌기 원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최절정에 달했다.

결국 부모님을 신고하고 집박을 나와 쉼터에 들어가고, 길고 긴 부모님과의 줄다리기 끝에 자퇴를 선택하게 되었다. 현재 나는 집과 쉼터를 떠나 자취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의 도움 없는 자립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어 막막하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그 방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지원방식은 너무 힘들었다. 먼저 내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후에 돌려받는 방식이었는데, 나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감당하기엔 어려웠다. 이런 식이 아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고 매달 정해진 날에 후불로 지불받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 길거리에서 떠돌거나 나처럼 집이 있더라도 돈 내칠 곳이 많아 학원비를 당장 지불하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립을 위해선 미성년자를 위한 알바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여학생인 경우 큰 문제가 생리대다. 일자리도 없는데다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슬픔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생리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변에 도움을 주는 손길이 많다면 우리도 그 도움을 받아 이겨내고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며 또 다른 아픔이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칼럼

이음일자리사업에 거는 기대

중·장년을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이 공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일자리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이음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사업은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해 8월 31일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2차 사업은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업예산은 1차와 2차 사업 통틀어 20억 원에 이른다. 1차 사업 때 260명이었던 공공일자리 창출규모는 2차 사업에서는 기존 인원에서 결원된 인원 보충과 함께 10명을 추가해 270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창출된 공공일자리를 보면 오름 환경관리와 탐방객 안내를 담당하는 오름매니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문화공연을 하는 버스킹 공연단, 지정된 장소에서 책을 대여해 주는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기부식품을 관리하고 배분해 지원하는 푸드메신저, 구인·구직활동과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지원단 등 모두 5개 분야에 이른다.

숲·오름 활용한 공공일자리 발굴 필요

이들은 일주일에 12시간씩 한 달에 48시간을 근무하고 456,000원을 받고 있다. 하는 일은 오름매니저의 경우 지정된 오름을 순회 방문하면서 환경지킴이 활동은 물론 보완해야 할 안전 시설 확인, 탐방객 안내 등을 맡고 있다.

실제 일자리 체험 수기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사업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머물면서 텔레비전이 친구가 됐을 것이다.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일이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이음일자리사업은 나이가 들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을 한 구직자들에게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계기로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범위 또한 사회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으로 나가고 있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숲과 오름을 갖고 있다. 이처럼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먹거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행정주도의 한정된 범위에서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숲이나 오름을 활용한 공공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한영조
산림치유지도사

● 소/식/마/당

(무순)

이웃사랑 물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강은숙 주무관이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사랑나눔푸드마켓을 방문해 이웃사랑 물품(95만원 상당 상품권)을 전달했다.

강 주무관은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이웃과 희망을 나누고자 작은 정성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 행사 개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1일 애월읍 유수암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을 개최했다.

송죽원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다 같이 어울리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거주 장애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한걸음 더 다가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참가



유진 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은 지난달 7일 이용 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개최된 ‘제11회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축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용 장애인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 농연대피훈련 체험 및 옛날 소방차 체험 등 다양한 안전 체험 활동과 부대 행사에 참가했다.

물품 기부 ‘훈훈’



남녕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홍태욱) 장학법인 사단법인 청연(이사장 고흥기)은 지난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 기부식품 물류센터를 방문해 102만원 상당 쌀 340kg을 전달했다.

고흥기 이사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실천으로 제주사회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단체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애덕의집(원장 허윤정로사 수녀)은 지난달 2일과 9일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의 개념과 거주인간, 종사자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애덕의집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집수리 개선사업 실시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달 10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선흘리와 아라동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가정 및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다양한 건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재능기부자들로 모인 ‘어울림 봉사단’과 복지관이 협약을 맺고 연 2회 이상 취약계층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창의사업 아이디어공모전 수상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달 8~9일 제주 시리우스호텔에서 열린 제4회 JPDC 창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내가 Green 제주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활용한 ‘착한 자전거렌탈’ 사업을,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은 ‘더-쓰임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야간방범 활동 진행



서귀포시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소장 강은숙)는 지난 8~9월 토요일마다 (사)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지부와 연계협약 통해 남원지역 일대를 돌며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쉼터는 위기(가출)청소년들에게 의식주를 비롯해 의료, 학업상담, 교육·생활지도 등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있다.

주민대상 지역사회육구조사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8~9일 이를 동안 건입동에서 진행하는 산지천축제에 참여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육구조사 및 나눔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복지관 관계자는 “육구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2019년 지역복지 사업에 적극반영,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복하우스’ 오픈식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지난 8월 31일 연동 소재의 원룸에서 센터 운영위원, 자립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하우스’ 오픈식을 진행했다.

행복하우스 지원사업은 센터 후원자 양연숙님 소유의 원룸을 장기임대해 저렴한 월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 및 취업으로 인해 제주시 거주를 희망하는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댄스 축하공연 연습



비전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명훈)와 샘솟는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명자)는 센터에서 아동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0월 20일 서귀포시지역아동센터 연합 성과발표대회에서 선보일 공연을 매일 연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아동들은 성과발표대회 시작하기 전 식전행사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댄스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입소 아동과 유대감 형성



제주소나이그룹홈(원장 김완숙)은 최근 그룹홈 아이들과 원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탐방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의 작은 걸음이 곧 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종달리 체험여장을 비롯해 번개체험박물관 견학 등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이유로 원가정과 떨어져 살았던 아동·청소년 및 실무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좋은 시간이 되었다.

시설탐방

(99)성자현

소통과 공감으로 따뜻한 '보금자리'

지역단체와 연계한 공연으로 자신감 고취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로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자현(원장 진유신)의 운영 방침은 ‘소통’과 ‘공감’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부모 모두에게 삶다운 삶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소속 장애인들을 주민들과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지역민’이라는 소속감과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고 지역과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자현을 들여다봤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성자현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한 직업생활지원서비스, 의료재활 서비스, 영양급식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진유신 원장은 성자현의 설립배경에 대해 “장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만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애아동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장애아동에게 맞춰진 시설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장애인과 부모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성자현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간다.

진 원장은 “지적이나 자폐장애의 경우 대부분 주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다”라며 “아이들 한명 한명 관심을 갖고 행동을 살펴 마음을 읽어야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자현의 소통 노력은 장애인의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

예컨대 머리카락을 뽑는 습관 때문에 항상 머리가 짧았던 장애인이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재 자신만의 헤어스타일을

가꾸고 있다.

진 원장은 “표현에서 오는 오해가 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원하는 것을 설명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행동을 정확하게 재해석해야 한다”라며 “아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아이들 역시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에 스스로 좋아한다. 이 모든 것은 소통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성자현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지역 내 풍물·민속보존회와 연계한 지역 공연이다.

성자현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풍물·민속보존회와 함께 지역 축제 때마다 공연에 나서면서 사회와 교류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경험을 통해 지역민이라는 소속감과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있다.

진 원장은 “풍물공연뿐만 아니라 오름 트래킹과 올레길 걷기, 도외 여행 등 나들이도 자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도 성자현의 강점이다.

진 원장은 “장애아동들은 재주가 많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다듬어주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며 “장애인들이 재할의지와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성자현은 소통과 공감을 운영 방침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모두에게 삶다운 삶을 선사하고 있다.



성자현 ●

일주동로

● 남원119센터

제남도서관 ●

남제주군종합운동장 ●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55

청소년(미성년자)의 범죄 처벌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성년에 이르지 못한 만19세 미만의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성인의 경우와 다른 절차를 두고 있다. 형법

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주로 작동하는 법은 소년법이다.

◆ 소년법상 연령에 따른 구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다시 10세와 14세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법상의 모든 나이는 만나이를 의미한다).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소년은 형사처벌이 가

능하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결정되는데 범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절차는 큰 차이가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처벌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보호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 보호처분이란?

결국 청소년의 범죄는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데 소년법은 보호자 등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위탁 등의 10가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보호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도 있고 각 보호처분별로 나이의 제한과 기간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에 서만 부과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만 가능하다. 소년원 송치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위 ‘전과’로 남지 않는다.

이 외에도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특별한 절차 규정들이 있는데 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도 그 중 하나다.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하고 피해자측이 신청할 때에는 판사가 재판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기사는 법무부 발간
‘2017 법률홍닥터 우수사례
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